

‘호흡기 전담클리닉’ 광주·전남 35곳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환자 간 교차 감염 차단

사전 예약제도 가능

광주와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3곳을 추가해 광주 13개 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동구 씨생명 삼성병원, 서구 서광병원, 남구 광주백병원, 미래아동병원, 북구 광주병원, 북구 미래아동병원, 에스케이제이병원, 광산구 광주수원미래아동병원, 광산하나아동병원, 첨단병원, 하남성심병원(31일 운영예정), KS병원(15일 예정), 광주수원병원(지난 8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 의원, 병원 등 지역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각 1개소씩 구축했다. 8일 기준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 등 18개 지역은 운영이 시작됐으며, 목표는 1월 둘째 주부터, 담양 등 3개 지역은 준비를 마친 후 이달 중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운영한다. 문진, 진찰, 검사,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를 하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도 운영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사업은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진과 환자간 교차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사업에는 호흡기 질환자와 타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별도의 동선공간과 환자 대기구역 등이 마련됐다. 또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해 8월 자치구별로 공모 절차를 거쳐 13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11월 남구 백병원을 시작으로 12월 9개 의료기관이 추가 개소해 10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달 중 광산구 하남성심병원



온풍기로 몸 녹이는 의료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한파가 이어진 1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핫팩과 온풍기로 몸을 녹이고 있다.

등 3곳을 추가 개소한다. 클리닉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진료 후 필요 시 발열, 호흡기 질환 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상기도 감염, 독감 등 일반 호흡기 질환 증상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해 발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대한 진료보다 안전하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은 안심하고 지역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마스크 착용, 각종 모임과 외출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닉을 통해 발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대한 진료보다 안전하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은 안심하고 지역 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마스크 착용, 각종 모임과 외출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위안부 피해자들 日 배상 소송 13일 선고 주목

고 김복동 할머니 등 日 상대 소송
한국법원 “일 배상하라” 첫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가운데 이번주 비슷한 소송 판결이 예정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민정청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고(故) 광에 남·김복동 할머니와 김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 등 21명은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접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었다.

이후 소송이 길어지면서 광에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국가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일본 외무성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우리 법원은

공시 송달 끝에 6차례 변론을 열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근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건과 취지가 같다. 민사합의34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3일 선고되는 사건도 앞선 재판처럼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두 사건은 모두 1심 판결을 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지만, 일본은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토 가스노부(加藤 隆夫) 일본 관광장관은 지난 8일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하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2명 탑승 인니 여객기 추락... 옷가지 등 발견

자카르타 앞바다 잠수부 투입
동체 찾고 블랙박스 회수 주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62명을 태우고 실종된 스리위자야항공 여객기 집중 수색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현지 매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은 “스리위자야항공 SJ182편(B737-500)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신체 일부와 옷가지, 금속 파편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류품이 발견된 지점은 자카르타 북부 해상 ‘천개의 섬’ 지역 랑장섬(Pulau Lantang)과 라키섬(Pulau Laki) 사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 “신체의 일부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SJ182편은 전날 오후 2시36분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62명을 태우고 칼리만탄(보르네오섬) 서부 폰티아낙을 향해 이륙, 4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여객기는 사고 당시 관제탑에 아무런 비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 두절 직전 60초 동안 1만 피트 이상 급강하했다. 교통부는 승객 50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했고, 승객은 성인 40명, 어린이 7명, 유아 3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J182편이 사라진 뒤 인근 어부들은 광둥이 발생한 장소에서 비행기 동체 파편과 청바지, 머리카락 등을 발견해 수색 당국에 인계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최정호 잠수요원 수십 명이 태운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사고 여객기 추락 추정지점에 도착해 수색을 준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총력을 다해 수색하라”고 지시해 군경이 해군 함정과 경비정, 헬기까지 준비했지만 밤중에 시야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잠수부들을 투입해 추락기 동체와 희생자들을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광주시·전남도, 오늘부터...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광주시, 전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일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

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11월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세회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빠르면 이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출력제로 신청을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매각공고

1. 입찰내용 : 발파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치장 위치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보성·임성리 6공구 현장)
나. 매각예정수량 : 63,344m3(자연상태) (2차분 31,672m3, 3차분 31,672m3)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 생략 (문의 061-463-6630)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 2021년 01월 12일(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01월 12일(월) 11: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전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국세징수법 제66조(배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라. 동 사업기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금액 일체 입찰 참가 허용
마.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인행중인 업체는 제외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차수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및 계약이행능력을 검토하여 낙찰자 차수별 1인 선정
나. 계약이행능력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 사전검증(반출계획,반출위치,반출방법)을 통과해야 함
다.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차수별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낙찰금액 전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운반, 인선, 원정,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처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균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바. 적치 후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암매각 처리 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발파량 500m3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암매각 처리 시(1일 발파량 500m3 미만) 자동으로 계약해지되고 선납금 매각 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차. 상기 매각예정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출 후 매수인의 불벌적지, 목적 및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청구, 행정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보성·임성리 제6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2-602-5332)

2021년 01월 11일

국가철도공단
KOREA NATIONAL RAILWAY

공고문

여주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식재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은 시 나무는 임의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1일
TEL. 010-4904-2334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북 구	• 동 22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안 571-7658	• 오 266-7601
	• 동 433-1503	• 동 433-1503
중 구	• 남 675-5530	• 문 222-0054
	• 동 부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651-1833
	• 북 부 675-5530	• 오 675-6605
	• 진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성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온 천 376-7153
	• 치 376-6511	• 통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힐 959-1920
	• 현 단 973-2900	• 하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9년

光州日報

• 69년 • 100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